

슈퍼루키 김도영 홈런같은 2루타 '핑'

KIA, 한화와 연습경기 2-1 승
김도영 톱타자로 선발출장
유격수 수비 실수 없이 마무리

시작은 아쉬웠지만 '슈퍼루키' 김도영의 마무리
는 좋았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와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갖고 시범경기 준비를 완료했다. 이날 김도영이 톱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마지막 이닝까지 소화하면서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1회 첫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리로 몰려났던 김도영은 3회에는 좌측 2루타를 때려냈다. 덕아웃에서 "홈런이다"라는 함성이 나올 정도로 큰 타구였다.

2루로 향한 김도영은 이어진 고종욱의 우전 안타 때 빠르게 홈에 들어와 득점을 기록했다.

5회 좌익수 플라리로 몰려났던 김도영은 8회에는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유격수의 실책을 유도, 두 번째 출루에도 성공했다.

김도영은 지난 5일 KT전에서 연달아 포구 실책을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친구' 윤도현과 키스톤 콤비를 구성해 큰 실수 없이 수비도 소화했다.

마무리캠프에서는 어깨 부상으로 1군 합류가 불발됐고, 스프링캠프는 코로나 여파로 합류가 늦어졌지만 기본 좋은 마무리였다.

김도영은 "지금까지 프로 와서 경기한 것을 되돌아보면 생각이 많았다. 오늘은 마지막 연습경기니까 마음 비우고 아무 공이나 다 치자고 했는데 좋은 타구가 나왔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치자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있다"며 "캠프 초반에는 많이 아쉬웠는데 후반에는 조금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끝이 좋아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고 캠프를 평가했다.

코치·선배들이 한마음으로 '막내'의 프로 적응을 도왔다.

KT전 실수 연발 뒤에도 김도영은 "코치님들께서 프로 선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해주셔서 신경 안 쓰고 플레이 했던 것 같다. 선배님들께서 편하게 자신 있게 야구하라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유격수 자리에서 훈련을 해온 박찬호가 좋은 멘토가 됐다.

김도영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셨다. 선배님께서 해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너는 기량이 뛰어나니까 자신 있게만 하면 된다'였다. 잘 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9일 '꼬꼬마 키스톤 콤비'로 호흡을 맞춘 동기 윤도현도 좋은 동기부여이자 힘이다. 두 사람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특급 내야수로 주목을 받은 경쟁자이자 친구다.

김도영은 "도현이는 초·중·고 시절 항상 잘 했다. 둘이 함께 뛰 것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돼서 좋다. 도현이 보면서 갑탄도 하고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있다"며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확실히 편하고 잘 맞았다. (앞으로 자리는)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지금 페이스를 이어 시범경기에서는 '특급 스피드'도 보여줄 계획이다.

김도영은 "차차 적극적으로 활발한 주루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오늘처럼 자신감을 갖되 많은 생각하지 않고, 나가면 활발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새 외국인 투수 선 놀린과 '홀드왕' 장현식이 처음 마운드에 올라 몸을 풀었다.

선발로 출격할 놀린은 3이닝을 소화하면서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회초 선두타자 정은원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이원석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하수석을 우익수 플라리로 처리했다. 노시환의 좌전안타로 2사 1:2루, 김인환을 3구 삼진으로 정리했다.

2회에는 10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기록했고, 3회도 탈삼진 하나를 곁들여 세 타자만 상대하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직구 최고구속은 147km, 평균구속은 143km를 기록했다. 커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도 구사하면서 상대 타이밍을 뺏었다.

장현식은 2-1로 앞서 9회초 출격해 10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탈삼진도 하나 기록하면서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인 김도영이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3회 좌측 2루타를 때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종국 감독 "두려움 없어져...시즌 준비 잘 하겠다"

스프링 캠프 일정 마무리

KIA 타이거즈의 '두려움 없는 야구'는 계속된다.

KIA는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연습경기를 끝으로 2022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월 1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된 캠프는 23일 훈련을 끝으로 광주로 장소를 옮겨 이어졌다. 26·27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체제로 전환한 KIA는 3월 3일 대구 원정에서 이어 6일 KT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엔트리 경쟁을 이어왔다.

그리고 8일에 이어 9일 안방에서 한화와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캠프 실전을 종료했다.

김종국 감독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진 느낌이다. 그런 마음을 더 갖기를 바란다. 임기영과 이의리의 부상이 아쉽다. 이들의 부상이 크지 않아 다행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무탈 없이 잘 온 것 같다. 다 잘해줬던 것 같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며 "캠프를 잘 했지만 시범경기도 있고,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더 이상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연습경기 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시범경기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캠프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투·타에 '공격성'을 강조했다. 캠프



김종국 감독

기간을 돌아보면 '절반의 성공'이다.

김 감독은 "투수들 템포나 공격적인 투구 성향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타자들도 좋아졌다"면서도 "아직도 적극적으로 못한 선수들이 보이는데 계속 주문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전달하고 있다. 시범경기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연습이다. (주루에서도) 무리하게 돌릴 수 있고, 승부할 수도 있다. 지금 아슬아슬한 것은 괜찮다. 주루하면서 아슬할 수 있다. 시도해보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프는 끝났지만 경쟁은 지금부터다. 김종국 감독은 시범경기에서도 '육성 거리가'를 이어간다.

김 감독은 "시범경기도 연습경기에 가깝다고 본다. 마지막 광주에서 2-3경기 할 때 베스트 선수들

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9일 선 놀린이 첫 실전에 나섰고, 양현종은 12일 NC전 출격을 준비하는 등 '부상 변수'에도 선발진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의 가세로 접전지가 된 외야는 '행복한 고민'을 안겨줬다.

김 감독은 "외야수 모두 잘하고 있어 개막 엔트리를 어떻게 짜야할 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내야수도 역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캠프를 치르면서 '마운드 셋업'로 떠오른 최지민은 '비밀 병기'로 꼽혔다.

김 감독은 "이제는 더 숨겨야 될 것 같다. 너무 노출돼서 상대가 분석하면 안 된다. 비밀 병기니까 조금씩 보여줘야 한다(웃음).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 컨트롤이 있고 자신감이 좋은 선수인 것 같다"며 "(9일 1사 만루 상황을 보면서) 감성적인 것 같고 게임을 할 줄 아는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상대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다. 기대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팀을 위한 희생 정신과 성실한 훈련 태도를 보여준 투수 최지민과 장재혁, 내야수 윤도현과 박민에게 '팀 퍼스트&미 래스'를 수여했다.

한편 10일 휴식일을 보내는 KIA는 11일 오전 훈련 뒤 창원으로 이동, 12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첫 시범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하승운(가운데)이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천시민축구단과의 FA컵 2라운드에서 후반 39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마이키(오른쪽) 등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FA컵 3라운드 진출

포천에 1-0 승리

광주FC가 하승운의 결승골을 앞세워 FA컵 3라운드 진출했다.

광주는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천시민축구단과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광주 새 동지를 든 하승운이 주인공이 됐다.

이날 로테이션을 가능한 광주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하승운이 정종훈, 새 외국인 선수 마이키와 전면에 섰고, 이도뜸-문상윤-김종우-두현석이 중원을 책임졌다.

장동찬-한희훈-김승우가 스리백을 구성했고 유스출신의 신승훈이 골키퍼 장갑을 썼다.

광주가 초반부터 강하게 포천을 공략했지만, 득

점에 실패했다. 신승훈이 좋은 수비로 포천을 막으면서 전반전은 0-0으로 마감됐다.

후반전에도 포천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음 급한 광주를 구한 건 '이적생' 하승운이었다.

후반 39분 마이키가 오른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 크로스를 올렸고, 교체 투입된 이경희가 헤더로 떨구준 공을 하승운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은 골대 맞은 뒤 골라인을 넘으면서 광주의 득점이 올라갔다.

광주는 이후 포천의 공세를 막으면서 1-0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K리그 2 정규리그 2라운드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던 광주의 연승이 기록됐다.

FA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광주는 4월 27일 인천유나이티드와 3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반도프스키 11분 사이 3골

뮌헨, UEFA 챔스 8강 진출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11분 사이 헤트트릭을 완성한 '특정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을 앞세워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를 대파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바이에른 뮌헨은 9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뮌

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잘츠부르크에 7-1로 완승했다.

이로써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던 뮌헨은 1, 2차전 합계 점수 8-2로 앞서 8강에 진출했다.

전반 12분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수비수 막시밀리안 뵈버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오픈발로 차넣어 대승의 신호탄을 쏘았다.

레반도프스키는 전반 21분에도 뵈버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2분 뒤에는 토마스 뮐러가 찰리존 공을 상대 골키퍼가 건어냈지만 세도하던 레반도프스키를 맞고 골대에 튕겨 나오자 레반도프스키가 뛰어들며 빈 골문에 밀어 넣었다.

레반도프스키는 불과 11분 사이에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아울러 키크오프 23분 만에 세 골을 터트려 UCL 역사상 최단 시간 헤트트릭 기록도 새로 썼다.

/연합뉴스